

관세청, '여름철 휴가용품 등 집중단속' 실시

캠핑·텐트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 위주 단속



관세청은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 등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물놀이용품이나 유해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등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特需)품목을 집중 단속품목으로 선정하고, 품명위장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범죄가 우려되는 화물의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 피해를 방

지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중점 단속품목

구 분	단속품목
캠핑·텐트용품	캠핑용 트레일러, 텐트, 낚시용품 등
바캉스용품	요트, 선글라스, 수영복, 물놀이용품, 선크림 등
여름가전제품	선풍기, 전기모기채 등

중점 단속유형

구 분	불법유형
밀수입	안전인증 대상물품 등 품명위장 밀수
부정수입	자가사용 위장 등 수입요건 회피
관세포탈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행위
원산지위반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둔갑 유통
지재권위반	국내외 상표권 침해 행위

[문의]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042-481-7818)